
연애는
어디서
배울수
있는
건가요

000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나에게 있어 연애는 참 어려운 것 같다.
 처음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는 내가
 일상 생활에 충실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적
 이었다. 어떻게 연애를 해야 그 친구와
 사귀면서 내 삶도 충실할 수 있었을지
 그 방법을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대학에 와서 누군가와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의 친한 사이로 지낼
 때는 그 상대가 나한테 고백을 왜 안 했는지,
 내가 고백했으면 사귀는 사이가 되었을지,
 과연 특별한 사이였기는 했는지 잘
 모르겠다. 국어, 영어, 수학, 전공 과목은
 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충분히 많은데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의미
 에서 연애도 잘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주었으면 좋겠다.



My failure story

연애는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대학 입시에 더 집중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내가 먼저 좋아했던 남자친구랑 헤어지며 했던 말이다. 나는 그 친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짝공이 되어 함께 대화하면서 혼자 짝사랑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모르는 걸 물어보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그 친구처럼 공부를 잘 하기 위해 노력했고,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했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나는 학업적인 측면에서나 자기 관리 측면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그 친구 덕분에 나는 내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긍정적 변화들을 경험했다. 그렇지만 나는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다. 학기 중에 짝공을 2달 넘게 하면서 매일 볼 수 있었고, 여름 방학에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을 정도로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 거의 매일 만나서 운동을 했고, 일주일에 2번 이상 데이트를 했다. 그래서 2학기가 되어서는 준비된 게 하나 없는 채로 공부를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학업을 따라가는 게 많이 버거웠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했지만 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그 친구와 헤어지고 학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학업에 본격적으로 집중하면서는 외모를 제대로 신경 쓰지 않고, 졸리면 밥도 굶다시피 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결국 나는 대학생이 되었고, 그 친구도 대학생이 되었다. 하지만 그 친구한테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 그래서 나도 그 친구를 잊고 대학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과 동아리에도 들어가고, 스터디도 하고, 멘토링 등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같은 학과의 화학을 잘 하는 친구랑 같이 단 둘이 카페에서 공부도 하면서 친해졌다. 시험 기간에는 카페에서 함께 공부하며 화학을 가르쳐주는 친구가 자상하고 멋있게 느껴졌다. 그러다 시험 끝나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게 되고, 한강에도 같이 놀러갔다. 그리고 미술관이나 맛집 탐방도 같이 다녔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나에게 사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함께 다니면서 연인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어쩌면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와중에 그 친구는 군대에 갔고, 나는 혼자 남았다.

그 후로, 나는 2학년이 되었다. 전공수업에서 팀플을 하며, 나보다 세 살 더 많은 오빠랑 가까워졌다. 그 오빠도 나처럼 고양이를 좋아해서 함께 고양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친해졌다. 서로 장난도 많이 하고, 스터디를 같이 하며 서로 도와주면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러다 학기 중 팀플을 잘 마무리하고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는 같이 맛집 탐방을 가기로 했다. 그래서 내 생일과 크리스마스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데이트와 비슷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방학에는 신입생 예비대학 멘토링을 같이 준비하며 자주 만나고 서로 도와줬다. 하지만 그 오빠는 방학이 끝나고, 취업 준비를 한다며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가끔 연락하는 정도로 적당한 거리의 친구 관계가 되었다.

나에게 있어 연애는 참 어려운 것 같다. 처음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는 내가 일상 생활에 충실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적이었다. 어떻게 연애를 해야 그 친구와 사귀면서 내 삶도 충실할 수 있었을지 그 방법을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대학에 와서 누군가와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의 친한 사이로 지낼 때는 그 상대가 나한테 고백을 왜 안 했는지, 내가 고백했으면 사귀는 사이가 되었을지, 과연 특별한 사이였기는 했는지 잘 모르겠다. 국어, 영어, 수학, 전공 과목은 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충분히 많은데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연애도 잘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주었으면 좋겠다.